

民間企業研究所의 育成



金 鎮 炫
(韓國經濟研究院副院長)

◇ 韓國未來技術元年

1982년은 그 意慾과 動機에 있어서 韓國現代 技術 또는 未來技術元年이라 할만 하다. 다소 상징적이긴 하나 「輸出時代」에서 「技術時代」로 政策優先順位가 바뀌어 가고 있으며, 金斗煥大統領의 語錄과 技術振興擴大會議의 開催를 보면 그는 분명히 歷史에 「技術大統領」으로 기록되기를 원하는 것 같은 印象을 받는다. 마치 前任 朴正熙大統領이 「輸出大統領」의 이미지를 바랬듯이.

이제 技術革新은 企業경영의 內部次元을 넘어 國民經濟的, 國家的 優先課題로 등장했다.

한국경제는 이미 78年을 계기로 剩餘勞動力의 無限공급이 가능하던 시대가 가고 勞動코스트가 급격히 상승하는 局面으로 접어들었다. 近代工業化에 필요한 燃料과 原料의 天然資源이 全無한 상태에서 오직 外部資金(借款 또는 外國投資)과 國內 剩餘勞動力의 結合에 의한 成長과 公營화는 이제 제로코스트勞動力의 消失과 더불어 成長의 새 엔진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것이 技術開發을 필요로 하는 첫째 이유이다.

둘째는 70年代後半에서 부터 전개된 重化學工業化가 業種, 投資時期, 技術選擇, 中小企業— 聯關產業과의 補完關係등의 실패에 따라 國民經

濟에 一大負擔과 낭비요소가 되었고 이를 극복하는 열쇠가 技術革新, 테크노로지補完에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不實官僚, 不實企業, 不實政策이 주도한 重化學工業의 실패는 第三者의 입장에서는 실패로 記錄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이 실패한 資產을 遺産으로 떠맡고 있는 오늘을 사는 韓國經濟는 실패한 遺産을 다시 살려 본래 의도했던대로 產業의 高度化, 迂廻度의 深化는 成就해야만 한다.

産業高度化니, 重化學工業化니 하는 것은 資本集約的인 동시에 技術集約的인 것이다. 이런 重化學工業化를 輕工業을 일으켰던 方式대로 資本도 技術도 外國에서 輸入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한데서 실패와 낭비가 왔다. 重化學工業化에 필요한 「資本과 技術의 內國化」이것이 우리의 當面課題이고 韓國스스로의 R & D(Research and Development)의 內生的必要, 절실한 필요가 제기된다.

세계는 中進國의 위치이나 우리는 技術을 의식하지 않고도 中進國水準에 이르렀다. 資本과 勞動力의 결합만으로 中進國水準에 이룰수 있었다. 原料資源과 技術의 問題가 제기되지 않고도 지도자의 의욕과 資本만 動員되면 成長이 가능

했고 輕工業의 産業化가 가능했다.

그러나 中進의 序列에 서면 先進國으로부터는 技術과 市場의 제약을 받고 後進國으로부터는 原料資源의 供給制約을 받는다.

여기서 先進國으로부터의 技術과 市場, 後進國으로부터의 資源의 制約을 극복하는 길은 종래와 같은 資本이 아니라 技術革新이다. 內生的인 技術開發로서만이 先進國의 技術장벽을 뚫을 수 있고, 非規格品, 高價品의 개발로 市場의 장벽을 뚫을 수 있고 資源代替技術, 原料代替技術로서만이 資源難時代는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中進의 좌절이나 先進으로의 跳躍이나의 結論이 다름아닌 技術開發과 技術革新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1982年을 未來技術元年이라함은 先進跳躍의 미래를 약속하는 유일한 길이 技術開發, 技術革新이고 그 문제의식이 擧國의으로 제기되었다는 데 있다.

◇民間企業研究所의 育成과 役割

현대의 自由, 民主, 開放國民經濟體制下에서의 企業의 역할을 옳게 이해하고 있다면 第2開發年代, 즉 技術時代의 技術開發主體도 궁극적으로는 民間企業이어야 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企業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社會組織이다. 오늘의 人類社會를 대표하는 社會組織은 官僚組織도 軍隊組織도 政黨組織도 宗教組織도 아니다. 불과 2백년전까지만 해도 아주 생소했던 企業組織이다.

이런 기업이 오늘을 대표하는 성격의 社會組織으로 발전한데는 현대의 社會的, 人間的要求를 가장 충실히 충족시켜 주는 조직이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自由를 기반으로 경쟁하는 능률적인 조직이요, 혁신과 유연성, 적응성을 생명으로 하기 때문이다.

인류의 역사에 나타난 지난날의 正統組織인, 官僚支配組織, 宗教儀式組織, 軍隊組織 그어는 것으로도 현대사회와 현대인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技術의 R & D의 두개의 엔진은 군대와 企業이다. 군대가 주도하는 R & D는 美國이나 朝鮮의 경우가 보여 주듯이 그高度의 技術

優位性에도 불구하고 國民經濟의 能率과 厚生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企業이 주도하는 R & D는 日本의 경우가 대표하듯이 産業의 高度化와 國民經濟發展에 크게 기여한다.

企業은 이점에서 資本主義의 產物이라기보다는, 政治的으로는 市民主義指向, 文化的으로는 多元主義指向, 社會的으로는 모빌리티와 다이나미즘指向의 현대와 근대의 產物이다.

성장과 발전의 엔진으로서의 企業이 技術開發보다는 資本調達에서 附加價值上昇을 실현해 왔던 것이 사실이었고, 기업인의 이런 판단은 지난날 政府의 公共政策誘導나 社會의 외부성이 유도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제 國家指導者의 확고한 意志, 近代, 經濟成長 20년만에 맞는 最惡의 構造의 不況, 中進國의 단계에서 맞는 운명적 선택, 勞動코스트의 物理的壓力등을 풀 수 있는 원리적 열쇠가 技術開發 즉,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기술인력 확보, 기술연구, 개발투자확대, 技術優位經濟體制의 확립에 있음을 인식시켰다.

기나긴 不況의 터널속에서 배운 가장 값진 敎訓이요, 정부나 기업이나 晚覺이긴 하나 그만큼 절실한 敎訓이기도 하다.

그러나 韓國企業人의 활력이 남아 있는 한 세계에서 가장 쉽게 배우는 즉 가장 뛰어나게 적응하는 국민성의 結合體로서의 기업은 분명히 技術의 開發과 革新에서도 창의성을 발휘할 것을 의심치 않는다.

한번 방향이 잡히면 유행성이라 불리울 만큼 모두가 한 방향으로 몰두하는 것이 한국인, 한국기업의 장점이요 단점이다.

民間企業研究所가 우리나라 國民經濟의 成長主役이 되고 우리나라 産業의 生産性向上과 革新의 샘(源泉)이 되기 위하여 政府나 社會가 지지해 주어야 할 誘引의 길은 많다.

기술인력개발, 技術研究施設投資, 研究用 機資材 및 소프트웨어 수입, 연구소설립 등에 있어 租稅誘引(稅額控除, 關稅減免, 先端技術産業部門의 特別減價償却, 地方稅部內의 특별조치 등)의 여지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金融部門에 있어서는 選別投資, 成長産業, 革新投資라는 측면에서 純金融部門에서의 低金利 信用資金의 공급은 물론 財政의 Seed Money는 벤처 캐피털과 효율적으로 연결 民間기업연구소가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人力供給의 측면에서는 民間研究所를 國策研究所와 구별하지 말고 인력확보와 運用을 동등하게 優待하는 조치(병역, 소득세, 研修費用處理 등)가 필요하다.

이런 일련의 조치와 더불어 일정기간동안 民間技術研究所의 春秋戰國時代의 전개를 인내를 갖고 지켜 보는 政府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한국에서의 官主導의 오류는 意慾의 부족이 아니라 최종적인 實需要者의 필요의 기준이 아닌 官僚의 現職必要의 기준에 의해 一律적으로, 單純論理, 形式論理로 물고 가는데서 오는 源泉의 인 낭비에 있다.

우리는 國民經濟의 優先順位變更에 있어 그 동기부여와 投資誘리를 위하여 政府主導가 필요함을 인정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經濟의 外部性을 자극하고 企業에 대한 시그널로 그쳐야 한다. 政府의 信號에 적응하여 民間企業이 春秋戰國時代를 전개하는 小乘의 浪費가 있는 것도 사실이나 動機부여에 그치지 않고 결과를 강요하는 判료의

지시는 국가적 낭비를 초래한다. 昌原과 麗川의 重化學失敗가 이를 증명한다.

未來技術時代의 전개에 있어서도 초기 일정기간은 民間의 企業연구소끼리 春秋戰國時代의 전개는 허용하고 여기에서 승자와 패자를 골라 즉 경쟁력의 실험을 거쳐 다음 段階 成熟의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

이것이 民間企業研究所가 우리나라 未來技術의 핵심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키우는 中心戰略이다. 그렇지 않으면, 民間企業研究所로 하여금 慢性的으로 政府依存을 體質化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政府의 劃一化를 강요하여 昌原 麗川의 重化學 失敗에 뒤이은 「技術時代」의 실패를 自招한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技術時代의 실패는 바로 한국경제의 中進의 좌절이며 先進跳躍의 실패이기 때문이다.

民間企業研究所는 韓國經濟와 社會의 能率과 革新의 第二跳躍의 핵심이 되어야 하며 그것만이 企業의 本質이 갖는 現代的, 近代的, 未來의 社會 經濟요구에 가장 잘 적응하는 特質을 우리가 가장 善用하는 길이다.

技術時代의 제도진입은 정부가 불을 부치되 技術時代의 內容은 民間企業研究所가 결정하고 담당하여야 한다.

投 稿 案 內

- =論 壇= 가. 學術論壇：産業發展에 寄與할 수 있는 國內外的 最新 科學技術
나. 學術情報：새로운 海外的 科學技術 情報 紹介
- =固 定 欄= 가. 科學隨感：生活周邊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事例中 科學技術의
인 내용을 소재로 한것
나. 漫畫：科學技術界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소재로 한것
- =原稿枚數= 가. 論壇, 기타 原稿：24 枚內外(200 字 원고지)
나. 科學隨感：15 枚內外(200 字 원고지)
다. 寫眞：1 枚(명함판)
- =其 他= 外來語表記는 文敎部에서 指定한 표기법을 사용하고 도량형은 政府
가 指定한 도량형法인 미터法으로 표기해야 함. (採擇된 원고에는 所
定の 原稿料를 드립니다.)
- =보 낼 곳= 서울특별시 江南區 驛三洞 76 - 561

韓 國 科 學 技 術 團 體 總 聯 合 會 編 輯 部